

## 諷刺의 概念과 그 方法的 特性

지신호\*

<차 례>

- I. 序 論
- II. 諷刺의 概念
- III. 諷刺의 方法的 特性
- IV. 結 語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근래에 이해되는 풍자의 개념에 대하여 동서양의 경우를 살펴보고, 서양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동양에서의 풍자의 개념과 방법적 특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 동안 풍자와 관련하여 행해진 학계의 기존 연구에서는, 간혹 동양의 문학이론이 논리적이거나 분석적이지 못하며 감상비평적이라는 편견에 의해 서구의 문학이론을 적용하여 분석을 행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연구 대상에 있어서도 초점이 주로 소설 등 산문 분야에 있었는데, 한국의 고전문학에서 漢詩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동양의 문학적 전통이 『詩經』으로부터 출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풍자 문학에 대한 연구가 상당 부분 시문학과 관련하여 행해질 필요성을 적잖이 느끼게 된다.

동양의 문학적 전통에서의 '풍자'는, 대상의 어리석음이나 사회의 모순점을 바로 잡고 그것을 교정해 나갈 것을 바라는 행해지는 문학적 방식일 뿐 아니라, 옳한 뜻을 지닌 시 작품 등을 통하여 인간의 성정을 다스리고 참된 본성을 회복하도록 함으로써 민풍을 교화하고자 하는 데에도 의의를 두는, 더욱 적극적인 문학의 표현 양식이 되어 왔다.

\* 서강대학교

그리고 ‘풍자’의 방법에 있어서는, 역대의 문장가나 비평가들이 풍자시의 작법에 관한 논의에서 ‘賦’·‘比’·‘興’의 방법을 모두 중요시하여 이해한 바와 같이, 겉으로 보기에 ‘賦’의 방법이 풍자성을 덜 내포하는 것 같더라도, 안으로는 諷諭의 깊은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는 등, 시인의 뜻을 곡진히 드러내는 데 그 나름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이기에 작법의 방법으로서의 ‘賦’의 기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이해가 행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풍자의 대상으로서의 상대방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동양과 우리의 전통에서는 시인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입장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재단하여 비판하려고만 하지는 않았으며, 도덕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넉넉히 간하듯이 말하여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風刺, 教化, 矯正, 賦, 比, 興, 上以風化下, 下以風刺上, 道德論

## 1. 序論

문학이 찬미하고 풍자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문학에 있어서의 ‘찬미’[美]와 ‘풍자’[刺]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論語』, 「爲政」篇, ‘無邪’章에 대한 朱子の 註釋에서 “凡詩之言, 善者可以感發人之善心, 惡者可以懲創人之逸志, 其用歸於使人得其情性之正而已.”(무릇 시에서 쓰인 말이 착한 것을 말한 것은 사람의 착한 마음을 감발할 수 있고 악한 것을 말한 것은 사람의 常道를 벗어난 뜻을 징계할 수 있으니, 시의 쓰임이 사람으로 하여금 性情의 바른 길을 얻게 하는 데 돌아갈 따름이다.)<sup>1)</sup>라고 하였으며, 茶山 丁若鏞 선생은 流配地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 「寄淵兒」라는 글에서 “不愛君憂國, 非詩也, 不傷時憤俗, 非詩也, 非有美刺勸懲之義, 非詩也.”(임금을 사랑하거나 나라를 근

1) 『論語』, 「爲政」篇, ‘無邪’章에 대한 朱子の 註釋 참조

심하지 않는 것은 시가 아니고, 시대를 아파하거나 풍속을 분히 여기지 않는 것은 시가 아니며, 찬미하고 풍자하고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意義가 없으면 시가 아니다.)<sup>2)</sup>라고 하였다. 위의 朱子의 『論語』 구절에 대한 주석과 茶山의 편지글에서와 같이, 시는 물론이요 모든 문학 작품을 통하여 사물과 인간사를 표현하거나 노래하고 아울러 희노애락의 감정과 작자의 인정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 ‘찬미’와 ‘풍자’는 문학 본래의 존재 의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중국 屈原의 <離騷經>에서는 풍자가 작품의 全篇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蘇東坡의 <赤壁賦>에서는 浩漭하고 悠長한 長江의 아름다움이 찬미되고 有限한 인생이 풍자적으로 노래되었다. 우리의 <춘향전>에서도 춘향의 貞節이 찬미되고 변사또의 포악함이 풍자되었으며, <심청전>에서도 심청의 효성이 찬미되고 뽕덕어미의 영악함이 풍자되기도 하였다.

본고는, 문학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풍자의 중요성을 의식하여, 동양과 서양에서의 풍자의 개념을 논의하고 비교 고찰함으로써, 그 이해를 위해 흔히 차용된 서양적 개념과는 일정한 차이점을 드러내는 동양의 문학 전통에서의 풍자의 개념과 풍자의 방법적 특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문학이론으로서의 풍자의 이론에 관하여, 풍자 일반론이나 그 시대별 특징에 대한 논의 그리고 풍자 시론에 대한 논의와 풍자의 형상화 방식에 관한 논의 등 적지 않은 연구가 행해졌다.<sup>3)</sup> 또한

2)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一集, 第二十一卷, 「寄淵兒」 참조.

3) 최재서, 「풍자문학론」, 『최재서평론집』, 형설출판사, 1981.

이명근, 「풍자문학론」, 『경기대논문집』 2, 경기대학교 출판부, 1974.

김중하, 「풍자문학론서설」, 『국어국문학』 12, 부산대 국문과, 1975.

구창환, 「풍자문학론고」, 『국어교육연구』 1집, 조선대 사범대학 국어교육학회, 1975.

우리의 현대문학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풍자 작가 蔡萬植의 소설과 같이 부조리한 사회 현실의 모습을 비판하는 작품에 대한 연구 등이 행해지기도 하였다.<sup>4)</sup> 그러나 이들 연구는 주로 서양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현대문학에 대한 연구로써 행해진 것이다. 한편 우리의 고전문학을 대상으로 하는 풍자에 관한 연구로는, 朴趾源·李鈺·丁若鏞 등의 작품에서와 같은, 혼란한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작품의 기법과 내용적 측면에서의 풍자성이 강하게 드러난 경우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며, 가전체 소설이나 판소리 사설에서와 같이 풍자성이 작품 전체에 강하게 나타나는 특정한 몇몇 장르와 관련하여 행해진 연구가 많았다.<sup>5)</sup>

한국의 고전문학에서는 漢詩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동양의 문학적 전통이 『詩經』으로부터 출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풍자 문학에 대한 연구도 상당 부분 시문학과 관련하여 행해질 필요성을 적잖이 느끼게 된다. 한시의 풍자성에 관한 연구로는, 權鐸·丁若鏞 등 조선시대 한시 작가들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sup>6)</sup> 그 동안의 연구 대상 작가와 작품

- 
- 4) 윤영옥, 「채만식 풍자 소설의 서사기법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논문, 1999.  
 이화진, 「채만식 풍자소설의 성격 재론」, 『국제어문』 제30권, 국제어문학회, 2004.  
 정홍섭, 『채만식 문학과 풍자의 정신』, 역락, 2004.  
 김영택, 「해방공간 소설의 풍자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 제17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5.
- 5) 이석래, 『조선후기소설연구-풍자와 관련하여』, 경인문화사, 1992.  
 오상대, 「燕巖小說의 諷刺 態度」, 『淵民學志』 제5집, 淵民學會, 1997.  
 권순궁, 「燕巖 朴趾源의 諷刺戰略과 漢文短篇」, 『泮橋語文學會』 제11집, 泮橋語文學會, 2000.  
 한예원, 「정다산 시경해석의 방법적 특색 : 『시경강의 (詩經講義)의 「국풍」(國風)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3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2.  
 권순궁, 「李鈺 傳의 시정세대 묘사와 諷刺」, 『한문교육연구』 제23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4.  
 권순궁, 『고전소설의 풍자와 미학』, 박이정, 2005.

이 대체로 일정한 시대에 국한된 감이 없지 않다. 그것은, 고전문학의 풍자에 관한 연구의 관심이 아직까지 주로 소설에 치우친 감이 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의 고전문학에서의 풍자에 관한 연구가 전반적인 문학 장르와 관련하여 폭넓게 행해질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풍자의 이론에 관한 연구 또한 풍자의 전통과 관련하여 폭넓게 통시적으로 행해질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 동안 풍자와 관련하여 행해진 학계의 기존 연구에서는, 간혹 동양의 문학이론이 논리적이거나 분석적이지 못하며 감상비평적이라는 편견에 의해 서구의 문학이론을 적용하여 분석을 행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기에, 동양적 정서가 표현된 작품들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이해의 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동양 문학 또는 우리의 고전문학에 있어서의 풍자에 관하여 연구하자면, 동양과 우리의 고전 작품에 나타난 풍자에 관련된 문학사상과 풍자의 형상화 방식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작품에서의 풍자의 의의를 이해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sup>7)</sup>

6) 정 민, 石洲 풍자시의 구조와 주제, 『한양어문연구 제8집, 한양대학교 한양어문연구회, 1990.

김상홍, 『茶山의 <弔蠅文>의 諷刺 世界』, 『漢文學論集 제19권, 槿域漢文學會, 2001.

김창호, 石洲 權輿 詩의 研究』, 『漢字漢文教育 제13집,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2004.

7) 앞에서 예로 든 기존 논의들이 '풍자 문학'에 관한 연구 전체를 대표한다고 하기는 어렵겠으나, 이를 포함하여 많은 경우에 동양의 문학 전통에 따른 방법론을 밝히고 그것을 이해하여 작품의 해석에 적용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논리적이고 정치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서양의 이론을 차용하여 해석·적용하였다. 어떤 작품이든 그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론이 있다면 동·서양의 차이를 막론하고 이해의 틀로 삼아 연구하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풍자의 경우, 서양의 이론은 대체로 그 대상의 모순이나 부조리를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일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 그 사상적 토대로부터 수사적 방법에 이르기까지, 善한 뜻을 지닌 시작품을 통해 민풍을 교화

본고에서는, 근래에 이해되는 풍자의 개념에 대하여 동서양의 경우를 살펴보고, 서양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동양에서의 풍자의 개념과 방법적 특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II. 諷刺의 概念

‘풍자’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말이다. 특별한 의식이 없이 흔히 쓰이는 말로서 <이것은 무엇을 풍자한 것이다.>라는 표현에서의 ‘풍자’의 개념은, ‘비판’이라는 말의 개념과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듯하다. 이 용어의 사전적 개념도 우리가 것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풍자’의 문학적인 사전적 개념을 살펴보면, 우리말에서 ‘풍자’는 <무엇에 빗대어 재치 있게 경계하거나 ‘비판’함><sup>8)</sup>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풍자시’라는 하위 범주를 설정하고 있는 현대시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덕,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문학 형태><sup>9)</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풍자’의 특성이 ‘비판’인 것처럼, 현대적 의미에서의 ‘풍자’는 어떤 대상을 ‘비판’하는 것에 그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는 서양적 개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어 사전의 정의를 따르자면, ‘풍자’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기 위한 유머나 과장의 사용><sup>10)</sup>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

하고자 하는 뜻도 지닌 동양의 풍자와는 일정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필자는 본고에서 그러한 차이를 보이는, 동양 전통의 ‘풍자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8)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2007 참조.

9)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01, p.264 참조.

문학적 개념으로는 <우행과 악덕에 대해 조소나 독설로써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격한다><sup>11)</sup>라거나, <‘풍자’는 웃음과 심한 공격적 태도의 결합이며, ‘유머’는 감미로운 감정과의 결합이다.><sup>12)</sup>라는 의미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현대에 사용되는 ‘풍자’의 개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차적으로 ‘비판한다’는 뜻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이 그 ‘대상’이나 ‘표현 양식’ 그리고 ‘어조’ 등에 따라서 폭넓은 의미의 범주를 지닐 수 있기에, 단순히 ‘풍자(=비판)’으로만 이해하기에는 그 범주가 지나치게 넓어서 일정한 뜻을 한정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의 용어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풍자’를 ‘비판’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나, 문학 용어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풍자’의 문학적 사전적 개념은, 대체로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같은 형식에 따라 ‘풍자’에 대한 동서양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현대적 의미에서 ‘풍자’는 <상대방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덕에 따른 생각이나 행동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이 모여서 서로 상호 작용하는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유머나 과장을 사용하거나 무엇에 빗대어 재치 있게 경계하는 문학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 용어로서이든 문학적 용어로서이든 이와 같은 ‘풍자’의 개념에 대체로 동의할 것이겠으나, ‘목적’·‘방법’·‘어조’ 등에 있

10) Satire is the use of humour or exaggeration in order to show how foolish or wicked some people's behaviour or ideas are.(Collins cobuild, *English-English dictionary*, HarperCollins Publishers Ltd., 2007.)

11) Joseph T. Shipley ed., *Dictionary of World Literary*, George Allen Unwin, London, 1970.

12) James Sully, *An Essay on Laughter*, Longman, Green and Co., London, 1902, p.380.

어서의 동양적 전통에서는 그 개념이 서양에서와는 일정한 차이점을 보인다  
고 하겠다.

동양 전통에서의 ‘풍자’는, 대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 줌으로써  
그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교정해 나갈 것을 바라는 언어적 행위  
외에도 좀더 적극적인 차원의 문학적 표현 곧 훌륭한 뜻을 지닌 시작품 등  
을 통하여 인간의 성정을 다스리고 참된 본성을 회복하도록 함으로써 민  
풍을 교화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는 문학 양식이라는 전통적 개념을 계  
승하여 왔다.

‘諷刺’라는 용어에서의 ‘諷’자는 ‘바람처럼 말하다’의 뜻으로 ‘넌지시 비  
추다’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본래 ‘風’자에서 유래한 글자임을 알 수 있  
다.<sup>13)</sup> 『毛詩序』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風, 風也, 教也, 風以動之, 教以化之.……上以風化下, 下以風刺上, 主  
文而譎諫, 言之者無罪, 聞之者足以戒, 故曰風.”

(‘風’은 ‘바람’<sup>14)</sup>이라는 말이고, ‘가르침[教]이라는 말이니, 바람이 불 듯 불  
어서 감동시키고 가르쳐서 감화해 나간다는 뜻의 말이다. …… 윗 사람[군  
왕]이 風으로써 아랫 사람[백성]을 교화해 나가고, 아랫 사람은 風으로써 윗  
사람을 풍자해 나가되, 문[文辭:글]을 위주로 하여 넌지시 諫하니, 말하는 사  
람은 죄가 없고 듣는 사람은 즉시 警戒가 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風’이라  
고 한다.)<sup>15)</sup>

이 구절에서 ‘上以風化下’·‘下以風刺上’의 두가지 이치가 대두되는데,  
후대의 연구자들은 전자를 ‘시경 국풍론’ 또는 ‘풍교론’이라고 하였고 후자

13)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諷’字의 字源 참조.

14) 이병한 교수는 ‘風’字를 ‘풍자하다’로 번역하였다.(『중국 고전 시학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2005, p.26 참조.)

15) 毛萇, 毛詩序, 참조.



를 ‘미자풍유론’ 또는 ‘풍자론’이라고 하였다.<sup>16)</sup>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들이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휩쓸리고 눕게 되듯이,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성정의 올바름을 나타내거나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는 문학을 통해 백성들의 풍속을 바른 방향으로 교화해 나갈 수 있었으며,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풍자를 하게 되었는데, 시문을 통한 완곡한 표현으로써 은근히 간하게 되니, 말하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성토했다는 등의 죄가 없게 되고, 듣는 사람도 듣고 난 뒤의 감정적 변화로써 충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충분히 경계를 삼을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현대 문학이론으로서의 ‘풍자’에는 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하는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두는 데 비해, 동양의 전통적 문학이론에서의 ‘풍자’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교화’의 의미를 늘 의식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동양적 전통에서는, ‘풍자’를 논할 때 ‘上以風化下’의 ‘풍교론’을 의식하면서 ‘下以風刺上’의 ‘미자풍유론’을 아울러 의식했던 것이다. ‘풍자’에 관한 이러한 인식은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조선 후기의 洪萬宗과 丁若鏞도 각각 그와 같은 인식을 보여 주었다.

“自學詩以來，得我東詩，而詩之名家者，不過數百。由今日而上溯羅季，幾一千載，其間識風教形美刺，開闔抑揚，深得性情之正者，可以頡頏於唐宋，模範於後世。”

(시를 배운 이래로 우리 나라의 시를 얻어 살펴보았는데, 시의 名家라고 하는 사람은 수백에 지나지 않았다. 오늘로부터 말미암아 위로 신라 말까지

16) 김성진, 『古典諷刺詩論 試考』, 『한국문학논총』 제10집, 한국문학회, 1989 참조.  
鄭堯一, 『韓國 古典文學理論으로서의 道德論 研究』, 『漢文學批評論』, 集文堂, 1990, ‘II. 道德論의 源流’ 참조.

소급해 보면 거의 천년의 시간인데, 그 사이에 風教를 알고 美刺를 나타내어 開闔抑揚함으로써 性情의 바름을 깊이 체득한 사람은 唐宋에 건줄 만 하였고 후세에도 모범이 될 만하였다.)<sup>17)</sup>

“若其風刺，則作者之本旨也，十五國風詩之旨，或善或惡，皆爲諷刺時政，微言以諷諭之，使人有感發之妙。”

(風刺는, 작시자의 근본 취지이다. 15국풍 시의 취지가, 혹은 선하기도 하고 혹은 악하기도 한 것이 모두 時政을 풍자하기 위한 것이니, 微言으로써 諷諭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감발하게 하는 묘함이 있게 한 것이다.)<sup>18)</sup>

위의 글에서 洪萬宗은, 참된 시로서 후세에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風教를 알고 美刺를 나타내어 감정을 여닫고 억누르고 드높이는 등 적절하게 표현하여 바른 성정을 깊이 체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丁若鏞은 국풍의 시들이 선한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악한 뜻을 나타내기도 한 것이 모두 그때의 정치 상황을 풍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풍자를 할 때 ‘풍교’를 의식해야 한다는 洪萬宗의 논리와 국풍 시가 은미한 말로써 선하고 악한 것을 모두 풍유해야 한다는 丁若鏞의 논리로 보자면, 시인이나 문장가가 美刺를 행할 때 풍교를 의식하고도 또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풍교’로써의 ‘시교’를 중시하는 문학론 또한 道德論的 文學論<sup>19)</sup>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론적 문학론에 따른 詩歌觀의 기본 정신은, 알찬 내용으로써 참된 道를 나타내는 것과 같이, 문학이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곧 문학이 인간의 ‘바른 性情’의 표현을 바탕

17) 洪萬宗, 『小華詩評』 卷之上 참조

18) 丁若鏞, 『與猶堂全書補遺』 五冊 참조.

19) 鄭堯一, 『漢文學批評論』, 集文堂, 1990, pp.11~53 참조.

으로 하거나 ‘溫柔敦厚’한 실속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문학을 통해 性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溫柔敦厚’한 실속이 없거나 하늘로부터 품부받은 ‘性情之正’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비판적 내용을 담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不善과 사회의 모순을 풍자적으로 표현할 때 시 또는 문장의 내용이 ‘온유둔후’한 실속을 지니는 진실된 것이면서도 人情을 곡진하게 드러내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여 바른 데로 이끌 만한 실속이 있도록 하는 데에 역대의 문장가들은 목표를 두었던 것이다.

‘溫柔敦厚’라는 말은, 그 말의 뜻이 내포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늘로부터 품부 받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과 두터운 인정’을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시가 백성들의 성품을 ‘溫柔敦厚’하게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의 착한 본성을 노래하거나 그것을 회복하려는 뜻을 담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앞에서 거론한 바 『論語』, 「爲政」篇, ‘無邪’章에 대한 朱子の 註釋에 서와 같이, 시에서 쓰인 말이 착한 것을 말한 것은 사람의 착한 마음을 감발할 수 있고 악한 것을 말한 것은 사람의 常道를 벗어난 뜻을 징계할 수 있으니, 시의 쓰임이 사람으로 하여금 性情의 바른 길을 얻게 하는 데 돌아가는 것이었다.<sup>20)</sup> 따라서 시에서 쓰인 말이 ‘溫柔敦厚’한 것은, 善한 표현으로써 외물에 유혹되어 본래의 천성을 잃어버렸거나 자연의 이치를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본래의 마음을 감발시켜 바른 성정을 되찾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sup>21)</sup>

이와 더불어 현실의 부조리한 모습을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면, 그와 같은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모순점을 지적하고 비

20) 註 1)과 同.

21) 朱子가 같은 관점에서 詩의 의의를 논한 내용이 『論語』, 「泰伯」篇, ‘興詩’章의 註釋에도 나와 있다.

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시절에 지어져서 불리는 시를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詩經』 시의 경우에도, 採詩之官들이 좋은 풍습을 노래한 시와 變風·變雅의 시를 아울러 채집하였다.

아랫 백성이 윗사람을 풍자한 것이라도, 그 태도가 완곡하여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기에, 말하는 자가 죄가 없고 듣는 자도 경계 삼을 만하였다. 그와 같은 이치를 『孔子家語』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孔子曰, 忠臣之諫君, 有五義焉, 一曰譎諫, 二曰戇諫, 三曰降諫, 四曰直諫, 五曰諷諫, 唯度主而行之, 吾從諷諫乎.”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충신이 임금을 간하는 데에는 다섯가지의 뜻이 있으니, 첫째는 홀간[둘러서 말하는 것]하는 것이요 둘째는 당간하는 것[꾸밈이 없이 말하는 것]이며 셋째는 강간[자기를 낮추어서 말하는 것]하는 것이며 넷째는 직간[바른 말로서 말하는 것]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풍간[풍자하여 말하는 것]하는 것이니, 오직 주장삼을 것을 헤아려 행하는 것이나, 나는 풍간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하셨다.)<sup>22)</sup>

이 말씀에 대한 주석에서, 明 나라의 何孟春은, “사물을 의탁하여 풍자하기에, 말하는 자는 죄가 없게 하고 듣는 자는 경계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sup>23)</sup>라고 하여, 풍자를 하되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文辭를 이용하여 은근히 말함으로써, 화자와 청자 간에 개인의 감정적 차원의 비난이나 원망이 없이, 화자는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모두 다 나타낼 수 있고 청자는 돌이켜 보고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내었다.

朱子は 『論語』, 「陽貨」篇의 ‘學詩’章에 대한 주석에서, “(마음속에 맺힌 것을 원망으로 해소하더라도) 시로써 원망하였기에 노기를 띠지 않고

22) 『孔子家語』, 卷三, 辯政 第十四 참조.

23) 위의 글, “托事以諷, 使言之者無罪, 聞之者, 足以戒也.”에 대한 何孟春의 註釋 참조.

자연히 부드러운 원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sup>24)</sup>이라고 하였다. 옳지 못한 인물이나 부조리한 사회에 대해 비판을 하거나 원망을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을 매개로 하여 우회적·간접적으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었기에, 작시자는 어디까지나 그 이상의 별다른 사벽한 의식적 목표가 없는 정성되고도 공명정대한 시적 자세를 보여 주는 데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동양의 전통적인 문학사상에서, 사회의 비리와 모순을 시가의 내용에 담아서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濟世的’인 詩風은 ‘溫柔敦厚’한 시적 의의과 더불어 중요한 미학적 의의를 다할 수 있었다.<sup>25)</sup> 毛萇의 『毛詩序』에서는 ‘治世의 音’이 아닌 ‘亂世의 音’ ‘亡國의 音’ 등이 『詩經』의 시에 나타난 것이, 정사가 어지러워져서 원망하거나 노여워했기 때문이며, 백성이 곤궁하여 애처로우면서도 생각에 잠기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25)</sup> 또한 王道가 衰함에 이르러 예의가 못쓰게 되고 政教[정령 등 교화의 기강]가 상실되어, 나라마다 정사를 달리하고 집안마다 풍속을 달리하게 되자, 變風과 變雅가 지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sup>26)</sup>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로서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가며 개인적인 삶을 영위할 때, 하늘로부터 선한 본성을 받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삶이 항상 바르고 참된 것은 아닐 것이다. 자신이 처해 있는 여러가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때로는 화평하고 참된 삶을 살 수 있으나, 때로는 그릇되고

24) 『論語』, 『陽貨』篇, ‘學詩’章에 대한 朱子の註 ‘怨而不怒’ 참조.

25) ‘托興規諷’의 ‘濟世的 詩風’으로서의 의미는 李敏弘의 石州 權鐸의 詩世界와 品格(『朝鮮朝 詩歌의 理念과 美意識-改訂版,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2000, pp.427~461.) 참조.

25) 毛萇, 毛詩序, “治世之音, 安以樂, 其政和, 亂世之音, 怨以怒, 其政乖, 亡國之音, 哀以思, 其民困.” 참조.

26) 毛萇, 毛詩序, “至於王道衰, 禮義廢, 政教失, 國異政, 家殊俗, 而變風變雅, 作矣.” 참조.

혼란한 삶을 사는 경우도 있다. 비록 외물에 가리워진 ‘氣質之性’의 발현에 의해 참된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先王의 아름다운 道가 衰하게 되었을 때 먼저 그와 같은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참된 방향으로 바로잡아 나가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바로잡는다’는 것은 ‘바른 기준’을 전제로 그것에 따라 ‘그릇된 모습’을 고쳐나가는 일일 것이다. 이상적인 사회가 아닌 현실적인 상황에서 좋은 풍습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었다라도, 현세적 삶을 인정하고 직시하면서 가능한 한 이상적 사회를 향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毛詩序」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의 시론이 전개되었다.

“國史, 明乎得失之迹, 傷人倫之廢, 哀刑政之苛, 吟詠情性, 以風其上, 達於事變而懷其舊俗者也. 故變風, 發乎情, 止乎禮義, 發乎情, 民之性也, 止乎禮義, 先王之澤也.”

(國史[王室의 史官 : 시의 채집과 제작을 주관하던 분]가 得失의 자취에 밝아 人倫이 무너진 것을 가슴 아파하고 刑政[法·刑罰과 政令]이 가혹한 것을 슬퍼하여, 性情을 읊어 그 윗 사람을 諷諫[風]하니, 事變[政事와 풍속의 변화]에 밝아 그 옛 풍속을 그리워한 것이다. 그러므로 變風은 情에서 나와 예의에 그쳤으니, 情에서 나온 것은 백성들의 性이요, 예의에 그친 것은 先王의 德택[덕택의 자취]이다.)<sup>27)</sup>

위의 내용에서는, 문학을 통해 풍자하는 일이 참된 옛 풍속을 그리워하여 따르고자 하는 일로서 도리에 맞으며 떳떳한 일일 수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詩經의 시들이 ‘治世의 音’과 같은 아름다운 내용만을 담고 있지 않은 것은, 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亂世’나 ‘亡國’의 일을 환기하게

27) 毛萇, 毛詩序, 참조.

하여 그런 일들을 他山之石으로 삼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뜻에서 朱子는 『論語』, 「子路」篇, 「誦詩」章에 대한 주석에서, “시는 인정을 바탕으로 하고 사물의 이치를 갖추어, 풍속의 盛衰를 징험하고 정치의 잘잘못을 볼 수 있게 하며, 그 말들이 온후하고 화평하여 풍자해서 깨우침에 장점이 있는지라, 그러므로 시를 외는 자가 반드시 정사에 통달할 수 있고 능히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sup>28)</sup>라고 하였으며, 『論語』, 「泰伯」篇, 「興詩」章에 대한 주석에서는, “배우는 초기에 착함을 좋아하고 악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흥기하여 스스로 그치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이 시에서 얻어지게 된다.”<sup>29)</sup>고 하였다. 이처럼 인간이 타고난 착한 본성을 잘 지켜 나가거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 옳지 못한 모습이나 태도를 지적하여 바로잡도록 하는 데에 문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공자는 시 공부가 중요함을 제자들에게 늘 깨우쳤던 것이다.

『論語』, 「陽貨」篇, 「學詩」章에는, ‘풍자의식’을 포함하여 시정신의 함양을 위한 孔子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子曰, 小子, 何莫學夫詩, 詩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어째서 시를 배우지 않느냐? 시는 착한 마음을 감발하여 의지를 흥기시키고, 시로써 풍속의 순후하고 소박함을 살펴볼 수 있고, 시로써 서로 노래 부르면서 무리를 지어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며, 시로써 원망할 수 있으며, 가까이는 부모를 섬기는 일로부터 멀리 임군을 섬기는 일을 알 수 있으며, 鳥獸草木의 이름을 많이 알 수 있게 한다.” 하셨다.)<sup>30)</sup>

28) 『論語』, 子路 篇, 「誦詩」章에 대한 朱子의 註, “詩本人情, 該物理, 可以驗風俗之盛衰, 見政治之得失. 其言溫厚和平, 長於風諭. 故誦之者, 必達於政而能言也.” 참조.

29) 『論語』, 「泰伯」篇, 「興詩」章과 그에 대한 朱子의 註釋 참조.

이 구절에서 ‘可以觀’이라고 한 것은, 시를 통해서 ‘풍속의 순후함의 여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詩經』 시는, ‘思無邪’한 정신을 바탕으로 하였기에 풍속이 쇠하는 것을 비판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원망을 할 때에도 시로써 하기에 원망을 하는 사람이나 원망을 받는 사람 모두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때로는 은근히 때로는 강하게 경우에 따라 자신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후세에 ‘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시를 통해 정치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사회의 모순된 점을 비판하는 일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詩의 말이 ‘溫柔敦厚’한 것은, 외물에 유혹되어 본래의 천성을 잃어버렸거나 자연의 이치를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본래의 마음을 감발시켜 性情의 바른 길을 되찾게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sup>31)</sup> 또한 악한 것을 말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를 통해 사람이 바른 도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기에 별다른 사벽한 뜻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丁若鏞도 그의 글 <國風>에서, ‘풍자시’가 지니는 효능을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風也者, 諷也. 或述善事, 使自喻之, 或述惡事, 使自喻之. 悅之憤之鬼之懼之哀之悔之感之動之, 不提不挈, 使自喻之, 此諷詩之所以作, 而詩之所以爲教於天下也.”

(風이란 諷이다. 혹은 착한 일을 서술하여 스스로 깨우치게 하고, 혹은 나쁜 일을 서술하여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기도 한다. 기뻐하며 분해하며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슬퍼하며 뉘우치며 느끼게 하고 움직이게 한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며, 쳐서 공격하지 않아도 스스로

30) 『論語』, 「陽貨」篇, ‘學詩’章 참조.

31) 註 21)과 同.



깨우치도록 한다. 이것이 諷詩를 지은 까닭이며, 시가 천하에 가르침이 되는 까닭이다.)<sup>32)</sup>

위의 글에서 정약용은, 풍자시가 원래 착하거나 나쁜 일을 서술함으로써 기쁨·분함·무서움·두려움·슬픔·뉘우침 등의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느끼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끌어당기거나 쳐서 공격하지 않아도 듣는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풍자시를 지은 까닭이 되고, 시교로서의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까닭이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동양의 전통에서 ‘풍자’는,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교정하도록 사회의 모순이나 개인의 바르지 못한 점을 비판적으로 나타내고자 했을 뿐 아니라, 착한 일을 서술하여 민풍을 참된 방향으로 교화하고자 하는 풍교론적 의식에서 말미암은 것이었다.

### Ⅲ. 諷刺의 方法的 特性

현대문학에서는, ‘풍자’의 방법으로 ‘아이러니’·‘알레고리’·‘해학’·‘묘사’·‘이미지나 단어 그리고 구문 등 문법적 요소의 활용’을 사용하고 있다.<sup>33)</sup> 이러한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동양과 우리의 풍자 문학에 대한 연구가 그 나름대로의 의의를 지니고서 적잖이 행해졌다. 그러나 동양의 전통적 문학에 관한 이해의 방식에서도, ‘六義’라고 하여, 『詩經』시의 체제와 작법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六義’는 ‘風’·‘雅’·‘頌’·‘賦’·‘比’·‘興’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 ‘風’·‘雅’·‘頌’은 ‘三經’으로서 시가

32) 丁若鏞, 『詩經講義補遺』, 『與猶堂全書 第二集 經集 第二十卷』, ‘國風’, <國風> 참조.

33) Arthur Pollard, 송락헌 역, 『諷刺』,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9, pp.30~84 참조.

신출된 배경 또는 시의 제작 의도나 목적에 의해서 구별되는, 『詩經』 시를 구성하고 있는 유형상의 장르 명칭이라고 할 수 있으며, ‘賦’·‘比’·‘興’은 ‘三緯’로서 노래하는 방법에 의해 구별되는 시의 일정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賦’는 사실을 그대로 노래하여 엮어 나간 것이며, ‘比’는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고 비유한 것이며, ‘興’은 點化[어느 지점으로부터 뜻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하는 말을 먼저 들어 사물을 노래하고 그런 뒤에 자신의 말을 일으켜 인간사를 비유한 것이다.<sup>34)</sup>

『毛詩序』에서 이와 같은 ‘六義’의 논리가 제시된 이래로, 역대의 문장가나 비평가들은 풍자시의 작법에 대한 논의를 할 때, ‘賦’·‘比’·‘興’의 방법을 이해하는 일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는, 사물에 비유하거나 사물을 노래한 다음에 자신의 말을 일으켜 인간사를 비유하는 ‘比’와 ‘興’의 기법이 풍자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데 비해 ‘賦’는 직설적이기 때문에 풍자와 거리가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風詩에만 ‘比’와 ‘興’이 있기에 풍시가 풍시답기 위해서는 ‘比’·‘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함으로써, ‘賦’의 풍자성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다.<sup>35)</sup> 이러한 견해가 ‘賦’의 풍자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고전문학에서 ‘풍자’의 개념을 이해할 때 <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잘못을 간언하면서 죄 입는 것을 피하고 해를 입지 않기 위해 비유적인 표현으로 넌지시 돌려서 말하는 것><sup>36)</sup>이라고 정의를 내리듯이 한다면, 마치 비유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것만을 ‘풍자’로 이해하는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앞서 ‘풍자의 개념’에서 논의한 바, 현대 문학이론으로서의 풍자의 경우와 달리 동양의 전통적 문학이론에서의 풍자에는 교화의 의의에

34) 鄭堯一, 『漢文學의 研究와 解釋』, 一潮閣, 2000, p.230 참조.

35) 김성진, 古典諷刺詩論 試考, 『한국문학논총』 제10집, 한국문화회, 1989, p.191 참조.

36) 김성진, 위의 논문, p.188 참조.

대한 인식이 늘 있었기에, 혹은 선한 일을 서술하여 뜻을 표현하고자 할 때라도 작지는 ‘賦’·‘比’·‘興’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다.

교화의 차원에서 ‘上以風化下’의 뜻이 잘 나타난 시작품으로서 朱子가 ‘賦’의 방법으로 서술되었다고 한, 詩經, 周南, <葛覃>시의 第三章은 다음과 같다.

言告師氏	師氏에게 여쭙어
言告言歸	친정에 갈 것을 말하라고 했노라
薄汚我私	잠깐 내 便服을 빨며
薄澣我衣	잠깐 내 禮服을 빠니
害澣害否	어느 것은 빨고 어느 것은 빨지 않을까
歸寧父母	내 돌아가 父母에게 문안하리라 <sup>37)</sup>

위의 시에서 后妃는, 絺綌의 옷을 이룬 뒤 師氏에게 여쭙어 장차 친정에 돌아가 문안할 뜻을 君子[남편]에게 말하게 하였으며, 便服뿐 아니라 禮服도 빨아서 그것을 입고 돌아가서 父母께 문안하겠다는 뜻을 나타내었다. <葛覃>의 모두 3章의 시에 대하여 朱子는 이르기를, “后妃가 신분이 이미 귀해졌는데도 능히 부지런하고 이미 富한데도 능히 검소하며 이미 장성하였는데도 공경이 師傅에게 해이하지 않으며 이미 시집을 갖는데도 효성이 父母에게 쇠하지 않음을 볼 수 있으니, 이는 모두 덕이 후한 것이어서 사람이 하기 어려운 바이다.”<sup>38)</sup>라고 하였다. 이 시는 后妃의 근본을 노래함으로써, 비록 后妃가 신분이 높아지게 되어 몸소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아내와 제자와 자식의 도리를 다하였기에, 참된 婦道로

37) 『詩經』, 「周南」, <葛覃>

38) 『詩經』, 「周南」, <葛覃>에 대한 朱子의 註釋 참조.

써 천하 사람들을 교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시는 ‘賦’의 방식을 사용하여 后妃의 뜻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었으니, 后妃의 술선수범하는 모습을 보고서 혹은 참된 婦德을 지니지 못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돌이켜 보고서 깨닫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비록 ‘比’·‘興’의 비유적인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시를 통해서 그 뜻을 던지시 사실적으로 드러내었기에 듣는 사람도 크게 거부감을 갖지 않고서 자신을 살펴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교정의 차원에서 ‘下以風刺上’의 뜻이 잘 나타난 『詩經』, 「鄘風」, <桑中>시의 第一章은 다음과 같다.

爰采唐矣	唐[兎絲]을 캐기를
沫之鄉矣	沫邑의 시골에서 하도다.
云誰之思	누구를 그리워하는고?
美孟姜矣	아름다운 孟姜이로다.
期我乎桑中	나와 桑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며
要我乎上宮	나를 上宮에서 맞이하였고
送我乎淇之上矣	나를 淇水가에서 전송하였도다. <sup>39)</sup>

위의 시는, 衛 나라의 公室이 음란하여 남녀가 서로 쫓아다니며 淫奔하는 모습을 풍자한 시이다.<sup>40)</sup> 이 시에 대하여 朱子は 이르기를, 衛 나라의 풍속이 음란하여 世臣의 집안으로 지위에 있는 자들이 서로 妻妾을 도둑질하는 모습을 賦의 기법을 이용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sup>41)</sup> 이 시를 지은 시인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인륜을 거스르며 사람들의 눈

39) 『詩經』, 「鄘風」, <桑中>

40) 『詩經』, 「鄘風」, <桑中>에 대한 毛序 참조.

41) 『詩經』, 「鄘風」, <桑中>에 대한 朱子の 註釋 참조.

에 띄지 않고자 도성으로부터 먼 곳에서 부정한 일을 행하여, 그 당시의 정치가 바르게 행해지지 못하고 백성들의 풍속이 착한 방향으로 교화될 수 없었음을 풍자했던 것이다. 그런데 시인은 비유하거나 다른 사물을 들어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않고서, 작시의 방법으로 ‘賦’의 기법을 사용하여 사실적 모습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였다. 더욱이 世臣들의 행위가 그릇되었다는 평가적인 언술도 없었다. 따라서 시의 대상이 된 世臣들이 시를 접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가 없는 내용에 대하여 단순히 불쾌한 감정적 반응을 보일 수 없었을 것이다. 지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백성들이 그러한 노래를 부른 의도를 생각하고서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보고 잘못을 바로잡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인은 ‘賦’의 방법을 사용해서도 자기의 의도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당 나라의 白居易도 <采詩官>이라는 시를 통해 풍유 정신의 상실이 채시관 제도의 폐지에서 비롯되었음을 풍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采詩官	채시관이여,
采詩聽歌導人言	시를 채록하고 노래를 들어 사람들 말을 이끌어 내오.
言者無罪聞者誠	말하는 이 죄 없고 듣는 이는 귀감으로 삼아
下流上通上下泰	위와 아래 서로 통해 모두가 태평했네.
周滅秦興至隋氏	周 나라 망하고 秦 나라 흥하여 隋 나라에 이르기까지
十代采詩官不置	十대에 걸쳐 채시관을 두지 않았네.
郊廟登歌贊君美	제사 때 廟堂에서 부르는 노래는 임금님을 찬미하고
樂府艷詞悅君意	樂府의 고운 노래는 임금을 즐겁게 해줄 뿐,
若求興喻規刺言	일깨워 주고 꾸짖는 말을 찾고자 하여도
萬句千章無一字	萬句天章에 한 字도 없었네.
不是章句無規刺	꾸짖고 나무라는 구절이 없음은 물론이고

漸及朝廷絕諷議	점차로 조정에는 諷刺하는 말이 자취를 감추었네.
…… (중략) ……	…………… (중략) ……………
貪吏害民無所忌	탐관오리들 백성을 괴롭혀도 거리낌 없고
奸臣蔽君無所畏	간신배들 임금의 총명을 가리두고 두려운 줄 몰랐네.
君不見厲王胡亥末年	그대여, 厲王이나 胡亥의 말년을 모르는가?
群臣有利君無利	신하에게 좋은 것은 임금에겐 이롭지 않네.
君兮君兮願聽此	임금이시여, 임금이시여, 내 말씀 들으소서.
欲開壅蔽達人情	막히고 가려진 것을 열어 人情에 통하시려거든
先向歌詩求諷刺	먼저 백성들 노래를 들어 諷刺를 구해야지.

위의 시에서 白居易는, 周 나라에서 시를 채집하여 정사를 바르게 하는 데에 이용하던 채시관의 제도가 폐지된 이후로, 간신배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임금의 귀와 눈을 가리려고 듣기 좋은 말로 임금을 즐겁게 하고 찬미만 할 뿐, 잘못하는 일을 일깨워 주거나 꾸짖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을 나타냈다. 간신배들에게 막히고 가려진 것을 열어 백성들의 인정에 통하기 위해서는, 周대에 그러했던 것과 같이, 백성들의 노래를 들어 그런 가운데 정치와 풍속을 풍자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백거이는, 이 시에서 그러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 작시상의 방법으로써 ‘賦’의 방법을 사용하여 당대의 풍유 정신이 사라지게 되었음을 풍자적으로 표현하였다. 곧 비유적인 표현 방식인 ‘比’나 ‘興’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 채시관 제도가 사라지게 되어 일어나게 된 일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그러나 다만, 같은 ‘賦’의 방법을 사용한 앞의 시 <桑中>과의 차이점은, <桑中>의 경우에는 사실적인 상황만이 서술되었다고 한다면, <采詩官>의 경우에는 사실적인 상황을 그대로 서술하면서 그러한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황에 대한 시인의 평가도 함께 서술되었다는 점이

다. 이는, 상황에 대한 是非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표현해냈기 때문에, 시인이 바르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유적인 표현이 독자나 청자에게 해석의 여지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賦’의 이와 같은 성격은, 경우에 따라서는 작자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더욱 강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唐代的 賈島는, 『二南密旨』에서 ‘賦’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布義曰賦. 賦者, 敷也, 布也, 指事而陳, 顯善惡之殊態, 外則敷本題之正體, 內則布諷誦之玄情.”

(뜻을 펼쳐 쓰는 것을 賦라고 한다. 賦는 펼친다는 뜻이요 나열한다는 뜻이니, 사물을 가리켜 진술하며 선과 악의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데, 겉으로는 그 주체의 正體를 곧바로 표현하는 듯하지만, 안으로는 諷諭의 깊은 감정을 펼쳐낸다.)<sup>42)</sup>

賈島의 설명을 따르자면, ‘賦’는 사물을 가리키거나 선과 악의 모습을 펼쳐서 나열하는 것인데, 겉으로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으나, 안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풍유의 뜻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는 곧 ‘부’의 방식에서 비록 비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우회적으로 작자의 뜻을 나타내어 비판하고자 하는 상황을 꼬집어서 표현하는 맛은 덜하겠으나, 직접적으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도 사실을 곡진히 그려내어 풍유하는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丁若鏞 또한 <六義>에서, “風者, 諷也, 或鋪陳義理, 使自喻之, 或比物連類, 使自喻之, 或託寓深遠, 使自喻之, 此皆諷詩之體也.”(風이란 諷이니, 혹은 마땅한 도리를 늘어놓아 스스로 깨닫게 하기도 하고, 혹은 사물에 견주고 비슷한 것에 잇대어 스스로 깨닫게 하기도 하며, 혹은 심원한 것에

42) 賈島, 『二南密旨』 참조.

가탁하여 스스로 깨닫게 하기도 한다. 이 모두가 諷詩의 體이다.)<sup>43)</sup>라고 하여, ‘풍자’는 마땅한 도리를 늘어놓든지 사물에 견주거나 심원한 것에 가탁하여 표현하는 것이며, 풍자시는 ‘賦’·‘比’·‘興’의 방법을 두루 사용한다는 뜻을 나타내었다. 더욱이 정약용은, ‘풍자’가 그 풍자의 대상으로 하여금 잘못된 점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논하였다.

梁 나라의 鍾嶸은, 『詩品 의 「序」에서 ‘풍자’의 방법적 성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설명을 가하였다.

“詩有三義焉，一曰興，二曰比，三曰賦。文已盡而意有餘，興也。因物喻志，比也；直書其事，寓言寫物，賦也。宏斯三義，酌而用之，幹之以風力，潤之以丹采，使味之者無極，聞之者動心，是詩之至也。

若專用比興，患在意深，意深則辭蹟。若但用賦體，患在意浮，意浮則文散，嬉成流移，文無止泊，有蕪蔓之累矣。”

(시에는 ‘三義’가 있으니, 첫째는 興이요 둘째는 比이며 셋째는 賦이다. 문장은 이미 끝났는데 문장의 의미는 여운이 있는 것, 그것이 興이다. 외물로 말미암아 자신의 뜻을 비유해 내는 것, 그것이 比이다. 일을 곧바로 서술하며 말을 빌어서 사물을 써내는 것, 그것이 賦이다. 이 ‘三義’를 넓혀 나가 두루 참작하여 운용하며, 風力으로 근간을 삼고 丹彩로 윤식을 하며, 음미하는 자로 하여금 여운이 끝이 없게 하고 듣는 자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것이 시의 지극함이다.

만일 오로지 比와 興만을 쓴다면 뜻이 너무 깊은 병폐가 있게 되니, 뜻이 너무 깊으면 문사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된다. 만일 단지 賦體만을 쓴다면 뜻이 부박한 병폐가 있게 되니, 뜻이 부박하면 문사가 산만하게 되고, 표현

43) 丁若鏞, 『詩經講義補遺』, 『與猶堂全書』, 第二集 經集 第二十卷, ‘周南’, <六義> 참조.



의 매끄러움만을 즐겨 그 문장이 지향하는 뜻은 없이, 번잡하기만 한 허물이 있게 된다.)<sup>44)</sup>

위의 글에서 鍾嶸은, ‘言有盡而意無窮’의 여운을 지니는 것을 ‘興’이라고 하고, 외물에 인하여 시인의 뜻을 비유하는 것을 ‘比’라고 하며, 말을 빌어서 사물을 써 내려가는 것을 ‘賦’라고 함으로써, 그 각각의 방법적 성격을 밝혔다. 그리고 이 세가지 방법이 내용적 측면에서 ‘풍교’·‘풍자’하는 힘으로 근본을 삼고 형식적 측면에서 文飾으로 꾸미기에, 시를 음미하는 사람은 느끼는 여운이 끝이 없고 듣는 사람은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시의 지극한 경지를 이룬다는 것이다.

또한 鍾嶸은, ‘賦’·‘比’·‘興’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 성격이 유사한 ‘比’·‘興’만을 고집한다면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 인해 뜻이 깊어져서 문사가 어색하게 되어 상대방이 그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게 되고, ‘賦’體만을 고집한다면 뜻이 가벼워져서 표현이 매끄러운 것만을 추구하여 글이 지향하는 분명한 뜻이 없이 번잡하게만 된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賦’·‘比’·‘興’이 ‘풍자’의 방법으로서 모두 그 나름의 문학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서술 방식에만 몰두하거나 뜻을 있는 그대로 가벼이 서술하기보다 그 뜻과 표현 방식 그리고 맥락이나 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苦心을 바탕으로 하여 형식과 내용이 조화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풍자’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語調에 있어서도 서양의 경우와 차이점을 보인다. 서양의 경우에는, “풍자의 목적은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풍자가는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에서 그의 실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위트는

44) 鍾嶸, 『詩品』, 序

세검이고, 육설은 처칠이 말한 도리깨이거나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곤봉이다.” “위트는 깨끗한 솜씨로 급습을 가한다.”<sup>45)</sup> 등의 표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을 얼마나 상하게 할 수 있는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칼이나 무기와 같은 날카로움을 지니고서 윤리·도덕적으로 우월한 입장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동양 또는 우리의 경우에도, 현대적인 풍자에 대한 이해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임어당은 이르기를 “humor는 우리를 즐겁고 우의에 찬 분위기 속에서 감싸주는 하늘의 자우와 같고 푸른 목장을 비추어 주는 태양과도 같은데, 풍자는 남을 조소하고 감정을 해치며 대상을 불쾌하게 하면서 제3자를 즐겁게 한다.”<sup>46)</sup>고 하였으며, 최재서는 이르기를 “풍자 작가는 격하되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한 통쾌미는 없을망정 사람을 찌르고 질식시킬 만한 신랄미와 심각미가 있다.”<sup>47)</sup>고 하여, 두 이론가 모두가 ‘풍자’는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고 질식시킬 만한 날카로움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양의 경우에는, 풍자를 할 때 상대방을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았으며, 옳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그를 안타까워하며 아쉬워하였다. 방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목적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 표현하였다. 참된 이치를 기준으로 하여 그에 합당한가의 여부를 우회적으로 던지시 표현하고 그리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돌이켜서 잘못을 살펴보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시인이나 문장가가, 자신의 도덕성이 우월함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도록 폭력적인 방법으로써 자신의 뜻을 표현할 리가 없었기 때문

45) Arthur Pollard, 송락헌 역, 『諷刺』,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9, p.85 참조.

46) 임어당, 동서양의 해학, 『제37차 세계 작가대회 회의록』, 국제 P.E.N. 한국본부, 1970, p.178.(이석래, 『조선후기소설연구』, 경인문화사, 1992, p.26 재인용.)

47) 최재서, 『풍자문학론』, 『최재서평론집』, 형설출판사, 1981, p.129 참조.

이다.

#### IV. 結 語

필자는 본고에서, 동양과 우리의 고전 작품에 나타난 풍자에 관련된 문학사상과 풍자의 형상화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작품에서의 풍자의 의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근래의 풍자의 개념 이해에 대한 동서양의 경우를 살펴보고, 서양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동양에서의 풍자의 개념과 그 방법적 특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동양적 전통에서의 ‘풍자’는, 대상의 어리석음이나 그 모순점을 바로잡고 교정해 나갈 것을 바라는 행해지는 문학적 방식일 뿐 아니라, 옳한 뜻을 지닌 시 작품 등을 통하여 인간의 성정을 다스리고 참된 본성을 회복하도록 함으로써 민풍을 교화하고자 하는 데에도 의의를 두는, 한층 적극적인 문학의 표현 양식이 되어 왔다.

한편, ‘풍자’의 방법에 있어서는, 역대의 문장가나 비평가들이 풍자시의 작법에 관한 논의에서 ‘賦’·‘比’·‘興’의 방법을 모두 중요시하여 이해한 바와 같이, 겉으로 보기에 ‘賦’의 방법이 풍자성을 덜 내포하는 것 같더라도, 안으로는 諷諭의 깊은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는 등, 시인의 뜻을 곡진히 드러내는 데 그 나름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이기에 작법의 방법으로서의 ‘賦’의 기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이해가 행해질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또한, 풍자의 대상으로서의 상대방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동양과 우리의 전통에서는 시인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입장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재단하여 비판하려고만 하지는 않았으며, 도덕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넉지시 간하듯이 말하여 자신의 잘못을 스스

로 깨닫도록 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풍자’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는, 자칫 추상적인 차원에만 머물 위험성이 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작품에 대한 다양한 차원에서 구체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개념과 의의를 비롯하여 작품의 개별적인 특성을 밝힐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시경』

『논어』

「모시서」

「시경대서」

『공자가가어』

鍾嶸, 『詩品』

賈島, 『二南密旨』

丁若鏞, 『與猶堂全書』

洪萬宗, 『小華詩評』

### 2. 논저

구창환, 「풍자문학론고」, 『국어교육연구 1집, 조선대 사범대학 국어교육학회, 1975, pp.51~94.

권순궁, 「燕巖 朴趾源의 諷刺戰略과 漢文短篇」, 『泮橋語文學會』 제11집, 泮橋語文學會, 2000, pp.169~191.

\_\_\_\_\_, 「李鈺 傳의 시정세대 묘사와 諷刺」, 『한문교육연구』 제23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4, pp.273~294.

\_\_\_\_\_, 『고전소설의 풍자와 미학』, 박이정, 2005, pp.1~293.

김상홍, 「茶山의 <甲蠅文>의 諷刺 世界」, 『漢文學論集』 제19권, 槿域漢文學會, 2001, pp.203~236.

- 김성진, 「고전풍자시론 논고」, 『한국문학논총』 제10집, 한국문학회, 1989, pp.185~206.
- 김영택, 「해방공간 소설의 풍자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 제17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5, pp.31~56.
-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01, pp.1~429.
- 김중하, 「풍자문학론서설」, 『국어국문학』 12, 부산대 국문과, 1975, pp.37~57.
- 김창호, 「石洲 權鞞 詩의 研究」, 『漢字漢文教育』 제13집,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2004, pp.371~404.
- 오상태, 「燕岩小說의 諷刺 態度」, 『淵民學志』 제5집, 淵民學會, 1997, pp.291~308.
- 윤영옥, 채만식 풍자 소설의 서사기법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논문, 1999, pp.1~172.
- 이명근, 「풍자문학론」, 『경기대논문집』 2, 경기대학교 출판부, 1974, pp.21~77.
- 李敏弘, 『朝鮮朝 詩歌의 理念과 美意識-改訂版』,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2000, pp.1~477.
- 이병환, 『중국 고전 시학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2005, pp.1~410.
- 이석래, 『조선후기소설연구-풍자와 관련하여』, 경인문화사, 1992, pp.1~339.
- 이화진, 「채만식 풍자소설의 성격 재론」, 『국제어문』 제30권, 국제어문학회, 2004, pp.247~274.
- 정 민, 「石洲 풍자시의 구조와 주제」, 『한양어문연구』 제8집, 한양대학교 한양어문연구회, 1990, pp.171~220.
- 鄭堯一, 『漢文學批評論』, 集文堂, 1990, pp.1~338.
- \_\_\_\_\_, 『漢文學의 研究와 解釋』, 일조각, 2000, pp.1~329.
- 정홍섭, 『채만식 문학과 풍자의 정신』, 역락, 2004, pp.1~387.
- 최재서, 『최재서평론집』, 형설출판사, 1981, pp.1~224.
- 한예원, 「정다산 시경해석의 방법적 특색 : 『시경강의』(詩經講義)의 「국풍」(國風)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3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2, pp.67~99.
- Arthur Pollard, 송락현 역, 『풍자』,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9, pp.1~98.
- Collins cobuild, *English-English dictionary*, HarperCollins Publishers Ltd., 2007, pp.1~1712.

James Sully, *An Essay on Laughter*, Longman, Green and Co., London, 1902,  
pp.1~441.

Joseph T. Shipley ed., *Dictionary of World Literary*, George Allen Unwin,  
London, 1970, pp.1~463.

## ABSTRACT

## The Concept of Satire and its Methodical Features

Ji, Shin-Ho

This report will discuss the concept of the eastern satire and its methodical features which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Western one, looking into modern concepts of the eastern and western satire. Until these days, established studies have sometimes shown that the eastern literature theories were less logical and analytic, therefore many researchers have borrowed the western literature theories to investigate eastern literatures.

In the eastern literature tradition, the satire is not only the rhetoric method done by the idea of correcting foolishness of the objects or contradictions of the society, but also more positive way of expression having significances in treating human nature and restoring the right one through the works of good contents.

In terms of the satiric methods, successive writers and critics have understood 'bu' (賦, a prose poem) 'bi' (比, comparison) 'heung' (興, arousing feelings) to be equally important ones in the discussions of the composing satiric poems. Even though the 'bu' looks less satirical externally, it can reveal deep feelings of allegory internally. So we should think of the satirical way of 'bu' as a more positive method. Also, in terms of the attitude, the eastern writers have not criticized the objects strongly in a morally high position pointing out their errors, but made them to be aware their mistakes by themselves explaining earnestly to them who didn't have the right moral standard.

**Key Words** satire, edification, correction, bu, bi, heung, educating peoples of low positions by a person of high positions, criticizing persons of high positions by a people of low positions, moral theory

논문투고일 : 2007. 9. 30.
심사완료일 : 2007. 10. 31.
게재확정일 : 2007. 12. 5.